

목회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 김창근 목사 -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D.min), OM선교회 서울 지부 대표, 무학 교회 담임목사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위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위한 열정이 필요하고, 학자는 연구 활동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는 기업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정치가는 정치를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열정은 행동의 원천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 역동적인 삶을 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열정이 활동의 원천이듯이 신앙적 열정은 신앙적 활동의 원천입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의 열정의 정도만큼 깊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목회를 위해서도 거룩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설교나 목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첫 사랑을 되찾고 열정을 가질 때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독일 뮌헨의 윌리엄 쿤네트 목사는 20년 이상을 목회하였습니다.

그의 교회는 대부분의 서구 교회와 같이 젊은 성도들은 하나, 둘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부임한지 10년이 되는 동안 주일에 모이는 성도들은 겨우 30-50명이었습니다. 교회 운영은 주에서 사례비와 교회 경비 일체를 부담해 주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나이만 먹고 봉급만 받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동독과 통일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교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교회에 대한 열정이 생겨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목회하는 바울 게르하트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이지만 예배는 빈 자리가 없이 성도들이 가득하고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의 열정을 회복하자 교회가 회복되고 독일에서 한창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헌신을 시작하고 헌신을 유지하는 것은 거룩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불과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였던 것처럼 그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의 열망은 미약하고 무력한 소원이 아니라 마음의 강렬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메이듯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열망하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를 극복하기를 사모하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의 사귀기를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교회의 미래는 목회자의 마음의 소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거룩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